

## 드디어 석도를 만나다!

배에서 내려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니 석도가 독도경비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드디어 만난 석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석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이곳 독도경비대장님이 우리 삼촌이셔. 삼촌과 통화를 하던 중에 독도에 와 있는 일본관광객과 한국관광객이 서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투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런데 일본관광객이 내세우는 주장에 한국관광객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속상해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삼촌에서 도움을 청했대. 삼촌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본관광객은 미리 준비해온 여러 가지 자료를 내밀더라.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말았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 내가 평소 독도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니 일본관광객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좀 밝혀달라고 말이야. 만약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준다면 여기까지 오는 길에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석도가 말하는 동안 독도경비대원들과 한국관광객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저 멀리 보이는 일본관광객의 표정은 유난히 밝아보였다. 내일이면 일본관광객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오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 이제 일본관광객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아보자!**